

# 조경소재로서 대나무의 활용가치와 특성

김사일/전입업연구원 산림환경부장

활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정서함양(情緒涵養)을 위한 문예(文藝) 및 조경소재(造景素材)로도 활용되어온 유형무형의 귀중한 재화(財貨)로 인간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에 생육하고 있는 죽종(竹種)을 중심으로 조경소재로서의 활용성과 이용가치에 대하여서만 지면상 간단히 기술코자 한다.

## ■ 대나무의 분포와 종류

전세계에 생육하고 있는 대나무의 종류는 47속 1,250여종이나 되고 대부분이 온대이남(溫帶以南)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5속 19종의 대나

무종류가 자생하고 있고 외국에서 도입되어 생육하고 있는 30여종을 합하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50여종의 대나무 종류가 생육하고 있는 셈이다.

대나무는 옛날부터 일상생활용품, 약용, 식용등의 자원으로

## ■ 대나무의 생육특성

대나무를 조경소재로 활용할려면 대나무의 생육특성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몇가지 중요특성을 열거해둔다.

㉔ 죽순(竹筍)의 발순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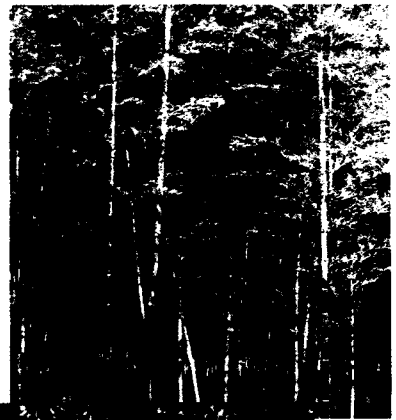
## 조경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종



포대죽



구갑죽



맹종죽



오죽



거북대



업평죽



왕대

대나무의 종류, 기후, 입지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4월상순에서 6월중순 사이에 발순한다.

㉔ 죽순이 자라기 시작하여 30~50일이면 다 자라고 다자란 후에는 몇년을 두어도 더 자라지도 굵어지지도 않고 굳어지기만 한다.

㉕ 대나무 잎은 일년에 한번씩 새잎으로 바뀌며 그 시기는 죽순이 자라 신죽(新竹)이 되어 가지를 버리기 시작하는 시기로 5~6월 경이다.

㉖ 대나무의 지하경(地下莖)의 신장(伸長)시기는 죽순의 생장이 끝날 무렵인 6월중순에 시작하여 11월중순경이면 신장을 완료한다.

㉗ 대나무의 수명은 죽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대경죽종(大徑竹種)은 15년전후, 소경죽종(小徑竹種)은 10년전후, 세죽류(細竹流)는 5년내에 자연고사한다.

㉘ 죽림에 있어서 노령죽(老



조릿대

齡竹)은 고사(枯死)하고 그 반면에 새로운 죽순이 매년 발순하여 신죽(新竹)으로 자라서 대체(代替)되기 때문에 죽림을 한번 조성해 놓으면 다시 심을 필요가 없다.

㉙ 발순한 죽순은 모두 생장하여 대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개 20~30% 정도의 죽순은 생장중지죽(生長中止竹)이 되어 썩어 버리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늦게 발순한 죽순에서 많이 생긴다.

㉚ 대나무는 50~60년만에 꽃이 한번 필 정도로 아주 드물게 피며 꽃이 핀 대나무는 전부 말라 죽는다.



이대

### ■ 대나무 정원조성과 죽종선정

대나무 정원을 조성코저 할 때는 조성예정지의 위치, 면적, 조성목적등을 감안하여 그 장소에 적합한 죽종을 선정 식재하여야만 주위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따른 죽종선정이 중요하다.

㉛ 왕대(苦竹), 솜대(淡竹), 맹종죽(孟宗竹)과 같이 키가 크고 직경이 굵은 대나무는 넓은

정원이나 건물의 후정(後庭)에 배경(背景)용으로 식재한다.

㉔ 오죽(烏竹), 포대죽(布貸竹), 엽평죽(業平竹), 어대(矢竹), 해장죽(海藏竹)등 소경죽(小徑竹)은 좁은 정원이나 수벽(樹壁)용으로 식재한다.

㉕ 조릿대(山竹), 곰대(畏笹), 거북대(河弓笹)등 세죽류(細竹類)는 중정(中庭) 및 보호주변의 지면 피복용으로 식재한다.

㉖ 현관이나 건물의 전면(前面) 가까이는 구갑죽(구甲竹), 오죽, 엽평죽등을 심는 것이 좋다.

이상에 제시한 죽종선정 요령은 죽종의 생육특성을 감안한 일반론적인 선정방법에 지나지 않고 사람마다의 기호에 따라 죽종간 혼식, 일반수목과의 혼식, 죽종변경등 다양하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다.

### ■ 대나무정원 조성방법

죽림조성에 있어서 모죽(母竹), 죽묘(竹苗), 실생묘(實生苗), 근주(根株), 지하경(地下莖)등으로 죽림조성이 가능하지만 죽묘, 실생묘등은 묘목양성

용 지하경 및 종자를 구하기가 어려운 반면 별도의 양묘기간이 필요하고 근주, 지하경으로 직접 죽림을 조성하면 활착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모죽에 의하여 죽림을 조성한다.

㉗ 모죽이라 함은 기존죽림(既存竹林)에서 2~3년생의 대나무중 생육이 양호하고 지하고(枝下高)가 낮은 대나무를 선정하여 그림 1의 ①과 같이 지하경이 40~50cm가 되도록 절단한 후 흠덩이가 깨지지 않도록 파낸 다음 대나무에 가지를 5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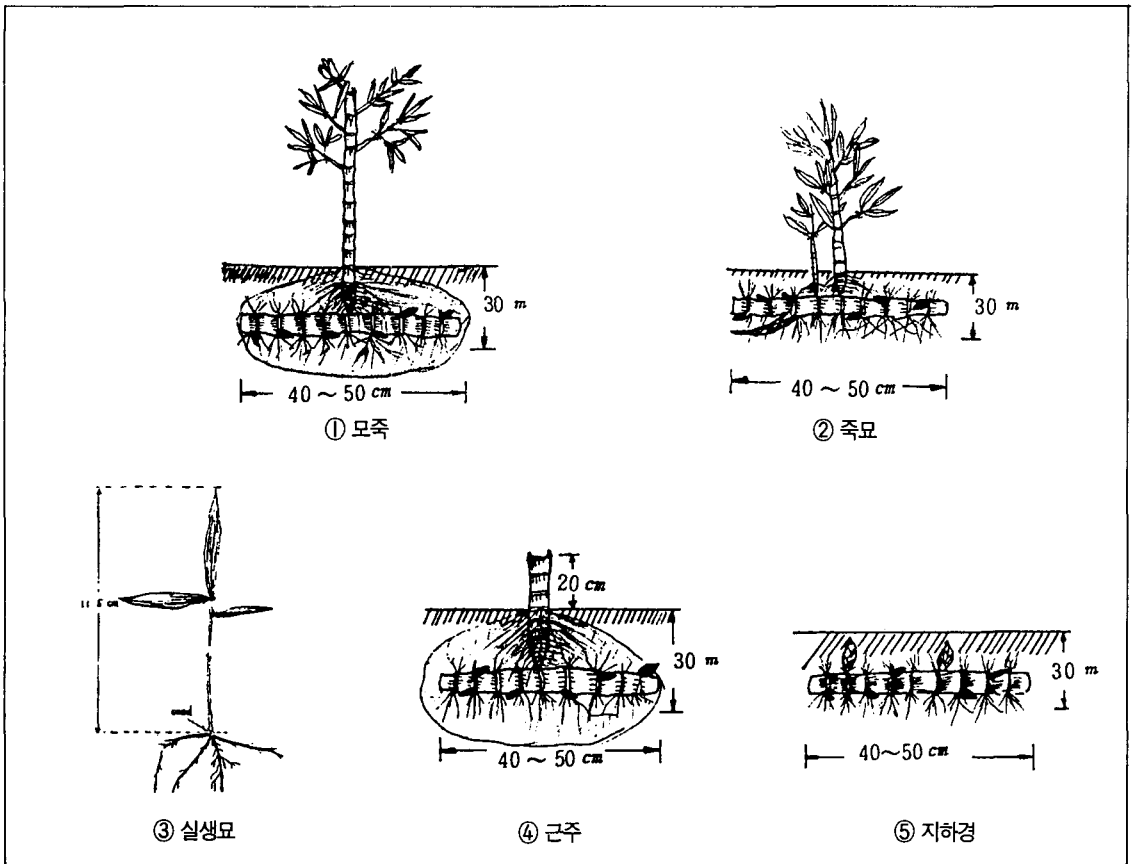


그림 1. 죽묘의 종류

다 정도 남기고 상단부를 절단해 버린 것을 말한다.

㉔ 죽림내서 모죽용 대나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2~3년생 대나무를 선정해야 하며 만일 노령죽(老齡竹)을 모죽으로 파다 심으면 번식력이 쇠퇴하여 죽순이 발순하지 않으므로 성림(成林)을 기대하기 어렵다.

㉕ 갓대, 조릿대와 같은 세죽류(細竹類)는 몇개의 대나무를 한덩어리로 파다 심으면 되므로 특별히 모죽을 선정할 필요가 없고 둘만지기 좋도록 한덩어리의 크기를 직경 30cm 정도 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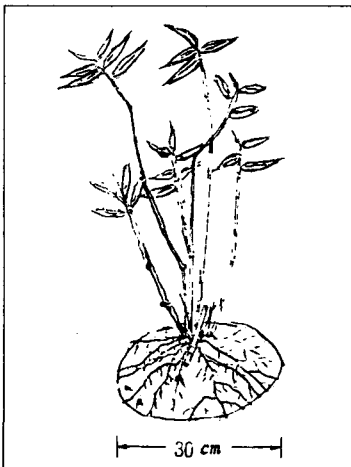


그림2. 세죽이식분

㉖ 죽림조성 시기는 죽순발순 1개월전인 3월상순과 지하경 신장완료기인 11월상순이 적기며 그 외의 시기에도 죽림조성은 가능하나 모죽을 파내는 기존죽림의 죽순발순과 지하경 신장에 피해가 크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㉗ 왕대(苦竹), 솜대(淡竹), 맹종죽(孟宗竹)과 같은 대경죽(大徑竹)은 4㎡에 1본, 오죽(烏竹), 포대죽(布袋竹)과 같은 소경죽(小徑竹)은 2㎡에 1본, 갓대, 조릿대, 거북대(河구笹)와 같은 세죽류는 1㎡에 한덩이씩 심으면 되나 죽림조성과 동시에 조경효과를 기대한다면 대경죽과 소경죽은 보기 좋도록 식재 본수를 적당히 증가시키거나 또는 2~3본씩 군식(群植)을 해도 좋으며 세죽류는 전면이 피복되도록 식재하는 것이 좋다.

㉘ 모죽 식재시에는 굴취 당시의 깊이보다 5cm 정도 깊이 심은 것이 좋으며 너무 깊게 심거나 얇게 심으면 지하경 신장 및 죽순 발순이 좋지 않다. 그리고 모죽식재후 지하부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밭아 줄 때는 모죽에 붙어 있는 흙덩어리가 깨지지 않게 흙덩이 바깥쪽만 밭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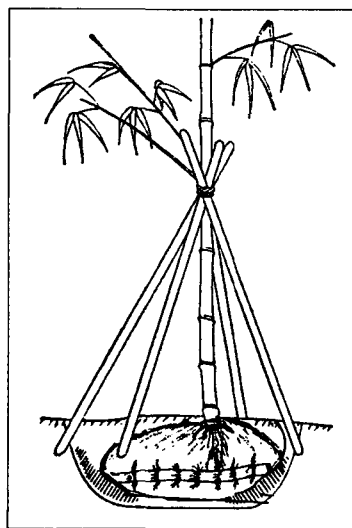


그림3. 지주설치

㉙ 죽림조성지가 바람 맞이인 곳에서는 모죽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주를 세워 고정시켜 주어야 한다. 모죽이 바람에 흔들리면 대나무의 하부와 지하경의 연결부가 분리되어 고사하게 된다.

㉚ 대나무는 음지, 양지 구별 없이 어디에서나 잘 자라기때문에 조성장소에 대한 제한 조건은 별로 없지만 배수가 잘되지 않은 습지는 좋지 않다.

### ■ 대나무 정원 비배관리

죽재와 죽순을 생산목적으로 경영하는 죽림에서는 시비, 객토등 비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지만 조경과 관상을 목적으로 조성한 죽림에 대하여서는 비배관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꼭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만 부연해 두고자 한다.

㉛ 시비시기에 있어서 식재초년도에는 지하경 신장시기인 7~8월에 한번만 시비하고 2~3년차 부터는 죽순발순 1~2개월전인 2~3월과 지하경 신장시기인 7~8월로 나누어 일년에 2회 시비한다.

㉜ 시비량은 식재초년도에는 모죽 1본당 뇨소 20g, 중과석 20g, 염화加里 10g, 퇴비 1~2kg를 시비하고 2년차부터는 모죽 1본당 시비량을 1㎡당 시비량으로 보고 시비면적을 환산하여 시비토록 한다.

㉝ 시비방법에 있어서 직재 초



맹종죽 발순광경

년도는 모죽을 중심으로 반경 30cm의 원형으로 고랑을 파고 시비를 한다음 묻어 준다. 이때 고랑의 깊이는 5cm 정도로 파면되고 너무 깊게 파면 새로 뻗어나오는 지하경이 상처를 받아 신장을 중지할 염려가 있으므로 깊이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2년차 부터는 고랑을 팔 필요가 없이 지면에 비료를 고루 뿌려주고 지면을 갈퀴로 긁어 주면 된다.

### ■ 대나무 정원의 입죽(立竹) 관리

대나무 정원의 입죽관리는 전체경관과 관상 하고저 하는 부위(줄기, 잎, 죽순)의 특색이 잘 나타나도록 가지치기, 단간(斷幹), 전정(剪定)등을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고 정돈된 경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에 몇가지 관리요령을 들어본다.

㉑ 대경죽종이라 하여도 식재 당년도 부터 굵은 대나무가 발순하는 것이 아니고 식재후 4~



대면적 맹종죽 정원

5년까지는 세죽 및 소경죽종과 같은 가늘고 작은 대나무가 발순하며 이 것들은 장래에 대경죽이 발순할 수 있도록 하는 모체가 되므로 제거하지 말고 대경죽이 발순할 때 까지 잘 보육하였다가 대경죽이 발순하여 어느정도 지면을 피복하게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㉒ 대경죽종의 관상가치(觀賞價値)는 질서정연하게 곳곳이 선 녹색줄기와 지면을 뚫고 힘차게 솟아 오르는 발순관경(發筍觀景)을 보는데 있으므로 병충해죽, 노령죽등 불량죽을 제거하는 한편 서 있는 대나무는 일정한 높이로 가지를 쳐서 죽림내부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발순관경을 관찰할 수 있도록 지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넋들을 걸드린 맹종죽 정원

㉓ 소경죽 및 세죽종류는 대경죽종과 같은 줄기 및 죽순의 관상가치보다 구성하고 있는 전체경관의 아름다움을 관상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줄기를 잘라서 높이를 조절하고 전정을 하여 모양을 다듬어서 주위의 경관과 지형에 잘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㉔ 병충해죽, 노령죽을 잘라낼 때는 그루터기는 가급적 지면에 나타나지 않게 가능한 낮게 잘라내고 잘라낸 그루터기는 가급적 빨리 썩는 것이 좋으므로 대나무를 잘라 낼 때 도끼로

찍어서 잘라내는 것이 좋다.

㉞ 죽순이 많이 발순하여 모두 대나무로 기르기에 너무 뻣뻣하다고 생각되면 너무 굵거나 가느른 죽순은 솟아내서 식용으로 이용하면 좋고 솟아낼 죽순은 늦게 발순한 죽순을 솟아내도록 한다.

㉟ 대나무는 지하경의 신장에 의하여 매년 죽림 면적이 확대되어 보도 기타 불필요한 곳에 까지 번져 나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면에 1m 깊이의 도랑을 파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릿대를 깎아 지피를 조성한 정원



나무와 혼식한 조릿대 정원



건물주변의 이대 정원



넷돌, 철쭉을 걸드린 거북대 정원